



눈빛조차 마주치지 꺼려하는 불자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체류'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떨군다. 사진은 지난 9월1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스리랑카 식당 '구시아'에서 만난 외국인노동자들의 모습.

불안·배신감...교회라도 다녀야 할 판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후 그들의 삶은?

"절에 가고 싶어요. 법피만이라도 열어주세요."
9월 1일 경기도 김포시 00리,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스리랑카 식당 '구시아' 주인 가미니(33) 씨는 어둠이 깔리면서 불빛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창틀까지 단속한다. 얼마 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부쩍 심해졌기 때문이다. 언제 출입국 단속요원들이 돌아다져 자신과 친구들을 끌고 갈지 모르는 상황. 눈빛조차 편히 놓아줄 수 없다.

'구시아'에 모인 외국인 노동자 10여 명의 눈에서도 국도의 불안감을 읽을 수 있다. 아침까지만 해도 옆 공장에서 일하던 친구가 출입국관리소에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담배를 문다. 예전에는 단속 기간만 피하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자리를 잡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소식에 긴 한숨을 쉰다. 낮 동안 바깥출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아예 공장에서도 외출을 못하게 막는다.

그나마 어두워질 무렵 눈을 피해 다닐 뿐이다. 그래도 한국을 불교국가라고 믿었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감' 뿐이다.

8월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정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20일 14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체포한데 이어, 21일 290명 30일 157명 등 하루 평균 10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내쫓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스스로 귀국 비행기에 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하루 평균 50여 명에서 130여 명으로 급증하거나 늘었다. 그 과정 속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

식당 한 구석에 앉아 있던 자나타(26) 씨는 "코리안 드림"은 접은 지가 이미 오래"라고 말한다. 2001년부터 한국 땅에서 번듯한 사업체를 꾸릴 목돈을 마련하겠다는 꿈을 키운 자나타 씨. 하루에 꼬박 12시간 일하는 것도 모자라 연장근로도 마다 않았다. 하지만 그 꿈이 절반도 이뤄지기 전에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쫓겨나게 됐다. 이제는 본노마저 없애졌다. 남은 건 고향에 남겨둔 가족에게 미안한 생각뿐이다.

자나타 씨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같은 불교나라라는 믿음 때문이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며 사찰도 가고, 한국 말을 배워 법문을 들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스님들의 법문을 들려달라는 어머니의 부탁도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판판이었다.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불교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사찰은 한국도 없었다. 법회라도 열 어준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절에 가고 싶었다. 한번만이라도 법석을 마련하기를 바랐다. 한국 스님을 붙잡고 애원도 했다. 돌아오는 건 쓸쓸한 무관심뿐.

불교계 무관심 속 불교권 국가 외국인 노동자들 개종 잇따라 '코리안 드림' 잊은지 오래...노동허가제 실시, 연수생제 폐지해야

스리랑카 공동체 회장 두만다 씨. 그는 한국어를 가르쳐준 사 람은 교회 목사와 기독교 신자였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찾아 간 교회는 일단 한국생활에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주었다. 절차에 이르러가까이, 이리다보니 예배시간을 참석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고 한다. 성경을 읽어야한다는 것도 거북한 일이 되지 않았다.

"인근 체류, 산재 등을 당할 때는 물론이고 돈이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면 도와주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의사와 변호사뿐이었어요.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한국에는 불자 의사와 변호사가 없는 줄만 알았어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스리랑카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는 랑카(28) 씨는 "이대로라면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쫓겨날 처지"라며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던 사업자에게 강한 형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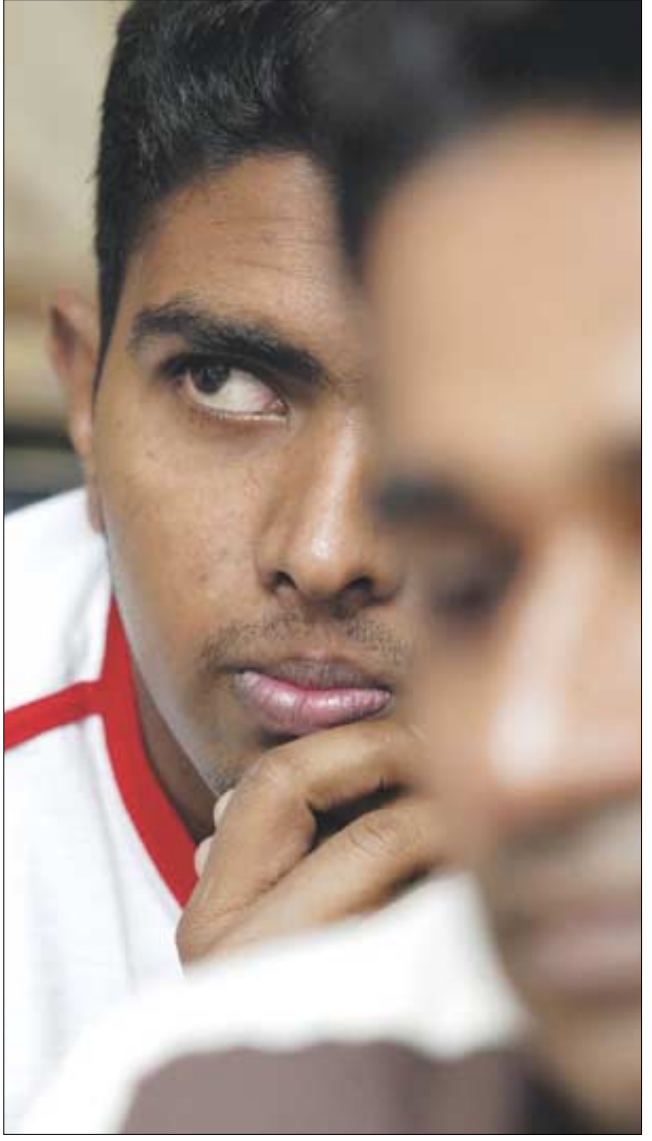
현재 한국에는 36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

다. 그중 불법체류자는 17만 2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최근 두 달 사이에는 무려 6천여 명이 증가했다. 천주교의 '말씀의 선교수도회' '착한목자수녀회' '예수성심전교 수도회' 등, 개신교의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광주외국인근로자선교회' '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회' 등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 있지만, 불교계가 지원하는 단체는 김포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부천 석왕사 '외국인 노동자의 집', 보성 대원사, 부천 석왕사, 구미 남장사, 작은손길 산하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 쉽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조계종과 강남 불은사, 안산 보문선원 등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법회개최, 의료서비스, 한글학교 등을 열고 있을 뿐이다. 불교권 국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개종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85%에 달하는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등의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UCCP(유평리언 연합교회) 소속 존스 갈랑 선교사는 8월 17일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확실한 전도 기회"라며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 기독교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다.
이와 관련해 김포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구분회 간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산업 연수생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체류자로 만드는 등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글=강유신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고국으로 돌아갈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

조계종, 외국인 노동자 법적 활성화·지원 확대 대책 마련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동남아 국가 출신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인권보 호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6월 건지동 한국역사문화 기념관에 외국인 상담지원센터를 열었으며 8월 27일 첫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사찰의 외국인 지원활동 유도 △한글교실과 사찰문화체험 △정 부정책 등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법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도 나서고 있다.



2. 프로 사주박사가 회원님들께 드리는 파격적인 특전 - '사주박사 6.0' 사용

- * 프로 사주박사의 회원(월 회비 36,000원)이 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 역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학 전문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 * 역학 전문가용 최신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은 현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역학 프로그램 중 오류를 완벽하게 수정, 보완한 최신 프로그램으로 개별 구입 시 가격이 150만원이나 하는 고가 프로그램입니다.
- * 프로 사주박사 회원은 '사주박사 6.0' 프로그램이 수시 업그레이드 될 때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원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관리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부 하고 역학에 자신이 붙으면 개인 홈페이지 하나쯤 갖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프로 사주박사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님을 위해 저렴한비용 (초기개설비 6만원)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정성껏 관리해 드립니다.

서울시 중로구 은니동 98-5 삼한빌딩 3층 **선도텔레콤 주식회사**
Tel. 02)742-3025~8 Fax. 02)742-3023